

화학기업 CEO “경기회복 낙관”

미국, CEO 신년지수 66으로 긍정적 ... 세계경기도 상승국면

미국 CEO들은 대부분 2004년 상반기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산업부문 CEO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CEO 신년지수(Confidence)는 2003년 3/4분기 67p로 상승한 이후 4/4분기 66p로 소폭 하락했으나 50p 이상을 기록해 CEO들의 경기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Conference Board는 3/4분기 경기흐름으로 볼 때 CEO 신년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조사결과 CEO들이 여전히 2004년 상반기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EO의 88%가 4/4분기 경기여건이 개선됐다고 대답해 3/4분기 6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63%가 참여 산업분야의 경기여건이 회복됐다고 평가해 3/4분기 36%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66%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해 3/4분기 73%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참여 산업분야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66%에서 63%로 하락했다.

대부분의 CEO들은 2004년 판매가격을 평균 1.5% 인상하고 이 가운데 약 5%는 10% 이상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9%는 오히려 인하할 계획, 약 22%는 가격인상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

PricewaterhouseCoopers's(PwC)의 7th Annual Global CEO Survey에 따르면, 세계 CEO들은 대체적으로 2004년 수익개선(Revenue Growth)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PwC는 2003년 4/4분기 세계 CEO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약 70%는 공업 및 소비재 부문에서, 17.5%는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12.4%는 기술/미디어 부문에서 추출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이 22%, 미국 13%를 포함한 북미 지역이 22%,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3%, 남미 지역이 18%, 아프리카 지역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수익전망에 대해 CEO의 약 31%는 강한 자신감<Very Confidence>을 보였으며 53%는 다소 자신감<Somewhat Confidence>을 나타내 2002년 각각 26%, 46%에 비해 상승세를 기록했다. 미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EO들은 각각 36%, 37%가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해 유럽의 22%에 비해 낙관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 별로는 소비재 및 공업제품 부문 CEO들은 약 29%가 수익증가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반면, 53%는 다소 자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3년 베이스 수익 전망치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아시아·태평양 및 남미 지역은 39%가 <Very Confidence>라고 대답한 반면, 유럽 지역은 <Very Confidence> 비율이 26%로 다소 낮았다. 소비재 및 공업 부문에서는 33%가 <Very Confidence>, 53%가 <Somewhat Confidence>라고 대답했다.

기업수익(Corporate Profitability) 전망에 대해서는 약 2/3(63%)가 2003년 수익 목표치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22%는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5%는 큰 차이로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재 및 공업분야는 각각 63%, 19%, 4%로 나타났다.

<Chemical Journal 2004/03/15>